

독서전략이 고등학생의 텍스트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Reading Strategies on Text Comprehension of High School Students

강재연 (Jaeyeon Kang)**

김기영 (Giyeong Kim)***

초 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해 학교도서관 관점에서 독서방법이 조합된 독서전략이 고등학생의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어떤 교육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독서전략이 청소년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요인으로 독서태도의 변화가 텍스트 이해력과 관계성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독서조합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는 텍스트 이해력의 성취와 독서태도의 변화라는 독서성파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텍스트 이해력과 독서태도 변화 간의 정적 관계가 확인되어 향후 청소년의 텍스트 이해력의 향상을 위한 독서태도의 효과적인 변화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reading strategy, which is a combination of reading methods on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ability were investigated using action research methodology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in educational fields. Also, the effects of reading strategies on adolescents' reading attitud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ext comprehension and change of reading attitudes were investigated. This study is unique for its adoption of reading method combinations as reading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ading in terms of text comprehension. Also, this study is meaningful in dealing with the cognitive abilities of high school students.

키워드: 독서전략, 청소년, 텍스트 이해력, 독서태도, 독서방법, 학교도서관
reading strategy, combination of reading methods, adolescents,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school library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요약본임.

** 예일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jaemi325@sen.go.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kim@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9년 8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19년 9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19년 9월 25일
■ 정보관리학회지, 36(3), 37-60, 2019.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3.037>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격한 미디어의 발달과 영상매체의 증가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도 텍스트 이해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요소이다. 이러한 텍스트 이해력은 인간의 생애주기 중 학습 습득력이 가장 좋은 유아, 청소년기의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에서 실시한 '성인 문해 능력 조사'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2015년 연구결과는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보다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력'의 부족이 문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언론매체의 기사와 교육계의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읽기 부진 현상이 교육계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청소년의 난독 및 문장 이해력 부족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습부진과 텍스트 이해력에 관한 문제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즉 텍스트 이해력은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필수적인 기초학습능력으로 청소년의 학습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체와 학계의 우려는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김수연, 2007; 김진아, 2010).

그 결과, 문해력 증진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독서이며, 독서는 크게 국어교육학과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효과적인 텍스트 이해를 돕기 위한 읽기 전략의 개발 시도는 꾸준히 제안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목적과 성취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자주 소개되는 독서방법조차도 구체적인 효과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독서에 개별 독서방법만을 적용한 방식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독서교육에 적용되는 방식, 즉 독서과정 내에서 적용되는 복수의 독서방법의 조합인 독서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독서전략과 텍스트 이해력을 포함한 독서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텍스트 이해력의 향상 측면에서 독서전략으로 설계된 독서방법의 조합이 가져올 시너지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인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텍스트 이해력과 독서방법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진단평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고등학생에게서 관찰되는 지문이해의 어려움과 독서 중도포기 및 무기력 행태를 개선하고자 현장에 맞는 독서교육수업을 구상하였으며, 문헌 연구를 통해 단계적 관점에서의 독서방법을 조합한 독서전략을 교실수업에 적용한 실험연구를 설계하였다. 각 독서전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실험수업을 진행하고 진단평가, 설문조사 등의 연구데이터 수집활동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독서전략으로서 독서방법의 조합은 텍스트 이해력을 포함한 독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질문 2. 텍스트 이해력과 다른 독서성과 요인 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1교의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고등학생 전체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텍스트 이해력(text comprehension)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라는 의미로 이와 유사한 표현인 독해력(multiple text comprehension), 독서력(reading), 문해, 문식성(literacy)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독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독서성과의 하나로 최근 청소년에게 시급히 필요한 주요 성취요소로 본다.

읽기 과제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독자의 적극적인 사고 활동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독서전략은 독서의 개념에 '행위자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의 전략이 붙어 생긴 표현으로 볼 수 있다(Mayer, 1984). 즉 독서 전략은 독서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독자가 글 속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독서교육사전, 2006). 본 연구에서는 독서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서로 다른 독서방법을 적용한 조합을 독서전략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독서 및 국내 청소년 독서실태

독서(讀書)는 플라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서를 탐구하는 연구 분야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Harris & Hodges, 1995). 사전적 의미의 책을 읽는 활동을 의미하는 독서의 구성요인은 크게 1) 독서의 목적과 과제, 2) 텍스트, 3) 독자, 4) 상황·맥락 등이 있으며,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 정서적 영역(affective domain), 사회적 영역(social domain)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이순영, 최숙기, 김주환, 서혁, 박영민, 2015). 그 중 인지적 영역에서의 독서는 특히 텍스트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지적인 작용에 대한 부분으로 '독자가 정보를 담은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습득하는 활동'의 의미를 내포하며, 국내 국어교육학에서는 교육과정 내 독서수준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감상적 이해, 창의적 이해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교육부, 2015).

현대사회에서의 독서능력은 복잡한 인지작용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ISA의 2015 결과에서 관찰된 대한민국 청소년의 읽기 소양 점수 하락은 독해 영역의 교육,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점차 중요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자욱, 김성숙, 이해원, 조성민, 박혜영, 2016). 특히 국내 청소년의 읽기 소양 점수에서 하위권 학생들의 비중이 큰 폭으로의 증가한 점은 독서능력의 저하, 난독 등 청소년의 텍스트 이해력에 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와 같은 청소년의 읽기 능력 저하 현상에 대한 국내 교육현장에서의 체감 정도는

매우 크다.¹⁾ 정서적 영역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표면으로 떠오른 시기도 있었으나(윤준채, 2011; 왕효성, 2014), 최근 관찰되는 청소년 독자의 문식행태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독서기능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해졌음을 의미한다(김용욱, 우정환, 신재한, 2015; 김은희, 2016; 유한익, 정재석, 이은경, 강성희, 박은희, 최인욱, 2016; 최숙기, 2017).²⁾

본 연구는 독서성과의 효과범위를 독서의 인지적 영역에 중점을 둔다. 즉 글을 읽고 해당 글 안에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측면으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독자, 텍스트, 독서목적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자를 유창하게 읽고 말할 수 있는 해독 능력에서 더 나아가 글의 내용과 뜻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독해(reading comprehension)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2 독서전략의 국내외 연구현황

각각의 독서활동은 그 나름대로의 전략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Applebee, 1993; Chablis & Calfee, 1998; Vansledright, 2001). 본 연구의 독서전략을 위한 고려요소로는 도서선택의 자율성이 있으며, 관련 연구로는 BOOKMATCH(Wutz & Wedwick, 2005),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박영민, 최숙기, 2008), 도서선정 자율성과 텍스트 난도의 영향력 연구(왕효성, 2014) 등이 있다. 소병문(2019) 역시 지정된 도서로 이

루어지는 강제된 독서활동은 학생들의 독서동기와 의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였으며 2015년 ‘한 학기 한 책 읽기’ 슬로건의 국내 국어교육정책에서도 교실에서의 독서활동 추진의 선행조건으로 학생의 도서선택 자율권을 강조하였다.

독서전략을 위한 두 번째 고려요소는 독서방법이다. 개별 독서방법과 그 방법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독서목적에 정리한 기존 연구도 있으나(변우열, 2009; 조미아, 2007), 각 독서방법의 독서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독서전략을 위한 세 번째 고려요소는 독서유형으로 독서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독서학습(learning to read)’과 ‘학습독서(reading to lear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서교육이 궁극적으로 평생 독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서교육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으며(이경화, 2005), 기존 독서연구가 학력신장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우려한 시각에서는 학습독서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유익함을 무시하고 성적향상만을 위한 도구로서 학생을 기능적 독자(skillful reader)로 성장을 제한함을 지적한다(이연욱, 2006; 최숙기, 2010; Afflerbach, Pearson, & Paris, 2008).

네 번째 고려요소는 조별 활동이며 기존연구에서의 조별 독서활동은 또래학습, 독서클럽, 독서토론, 독서워크숍 등이 있다. 교육학에서의 조별 활동 개념으로는 또래학습(peer tutoring)

1) 장옥순 (2012. 7. 26). 난독증을 모르는 선생님, 너무 많아요. 한국교육신문.

김효정 (2019. 5. 13). 우리 아이가 글을 못 읽어요!. 조선일보.

2) 김만구 (2017. 12. 17). 난독증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군 단위로 확대돼야 경기도 지자체 최초 난독증 전문치료 사업 추진. 국제뉴스.

표태준 (2018. 1. 19). 세 줄만 넘어가도 어쩔... 혹시 당신도 긴글 까막눈?. 조선일보.

이 있으며, 독서로 활동범위를 좁히면 독서위크숍, 독서클럽, 독서토론이 있다(김주환, 2018; 한철우, 2005; 한철우, 홍인선, 2005).

2.3 청소년 독자

독자는 독서행위의 주체로 독서 목적의 인식, 독서 대상인 텍스트의 선정, 독서 방법의 결정, 실제로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과 전략을 사용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련의 활동에 참여한다. 독자를 나이에 따라 구분할 때,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나 국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으로 10대 중후반(13-18세 내외)의 사람으로 이해된다.

청소년 독자 대상의 연구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 독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정옥년, 1998),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청소년 독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주로 독서태도, 효능, 전략, 흥미, 습관, 독해력, 문식환경 등의 측면에서 실시된 독자연구는 그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집중되어 있다(권은경, 2012; 류보라, 2013; 박수자, 2003; 송기호, 2007). 고등학생을 이미 성숙한 독해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학계의 인식과 입시 위주의 고등학생 일과는 독서교육에서 고등학생 독자가 배제되는 원인으로 보인다.

2.4 독서교육 평가

평가는 개별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기초능력 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능력

및 이해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독서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시험 외에도 설문이나 검사의 형식으로 개인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고등학생 수준의 인지적 영역 측정도구로는 국제학업성취도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가로 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교육현장의 학교별 내신평가제도가 있으나, 두 국내 평가 모두 포괄적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독서성취 정도의 평가로 보기 어렵다. 한편 독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내 표준화 문항으로는 노명완의 NRI(Nohmyungwan Reading Inventory)TM와 교보문고의 READ검사(Reading Environment & Ability Degree)TM가 있으나, 고등학생이 적절한 수준의 텍스트 이해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비영리 독서능력 진단도구는 부재하다. 그 결과 독서활동을 통한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확인하고자 한 국내 연구에서는 교과 성적 혹은 언어영역 성적을 근거로 한 학업성취를 평가한 사례가 있으며(함명식, 2003), 교육심리에 근거하여 텍스트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진단문항(권희경, 신종호, 2014)을 직접 현장의 학생들에게 적용한 연구사례도 있다(김선경, 윤소정, 김정섭, 2011).

3. 연구 방법

3.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독서방법을 다르게 조합한 독서전략의 시너지효과를 텍스트 이해력을 포함한 독서성과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궁극적

으로 청소년의 텍스트 이해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법적 조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기초학력 신장에 기여하고자 텍스트 이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독서성과 간의 관계성도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질문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동시에 적용되는 독서방법 간에 상호보완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설 1]

- 독서전략에 따라 텍스트이해력의 성취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집단별로 다르게 경험한 독서전략이 실험수업 참여 이후의 변화된 독서태도에 차이가 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 독서전략에 따라 독자의 독서태도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독서는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

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이해력을 독서의 인지적 영역으로, 설문조사의 독서태도 요인은 정의적 영역에서의 독서로 해석하여 두 요소 간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 텍스트 이해력의 성취결과와 독서태도 요인 간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한 일반계 A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학교의 1학년은 한 학급 당 29~34명의 인원으로 최초의 실험 대상자수는 380명이었으나 결석 및 조퇴 등의 사유로 결과에 누락이 발생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328명의 결과가 통계처리 되었으며 <표 1>의 4개로 나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는 당해 실시된 모의고사 언어영역을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4개 학급을 각 집단에 한 학급씩 배정하여 집단 간 평균 언어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실험집단 및 독서전략 구성

	집단 a	집단 b	집단 c	집단 d(통제)
참여 학급명	2, 6, 8	3, 5, 12	1, 4, 9	7, 10, 11
독서전략	a (적독형 개별 통제흥미독서)	b (통독형 조별 통제학습독서)	c (적독형 조별 자율학습독서)	d (통독형 개별 자율흥미독서)
도서선택 자율성	통제	통제	자율	자율
독서범위	적독	통독	적독	통독(1권)
도서내용	흥미	학습	학습	흥미
조별 활동 여부	X	O	O	X
사전/사후 진단평가	O	O	O	O

3.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독서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교육현장에서 관찰된 독서교육의 문제점과 고등학생의 독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설계하였다. 실행연구는 교육학에서 많이 쓰이는 연구방법이며, 문제상황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는 수행적 연구방법이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그 중 진단평가는 기존의 텍스트이해력 연구(권희경, 신중호, 2014)에서 활용된 문항을 기반으로 국어교사의 확인과 조율을 받아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다.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시행된 실험수업과 수업 전후로 진행된 진단평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절차가 진행되었다.

3.4 연구 설계

3.4.1 실험연구 모형

본 연구는 실제 교육현장의 교실수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학년 초 구성된 학급구성을 연구의 실행을 위해 재배치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년 초에 배정된 학급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무선배치와 통제 집단의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표 2>의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방식의 사전·사후 비등가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모형을 이용하였다.

실험 처치에 노출된 세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하나의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의 해당 연구모형은 네 개의 집단이 동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비교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자 하였다(김영석, 2017). 내적 타당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개의 집단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험 처치하였으며, 타당도를 높이고 외부 요소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요소들을 사전 통제하여 동일교사가 통제집단을 포함한 네 집단을 모두 지도하였다. 네 집단이 참여한 실험단계는 <표 3>과 같으며,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업활동은 정규 수업시간 중에 진행하였다.

1단계에는 실험수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당 독서수업이 비문학 독해 및 기초 독해실력에 도움이 될 수 있

<표 2> 비등가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도

실험집단 a	O ₁	X ₁ (독서전략 a)	O ₅
실험집단 b	O ₂	X ₂ (독서전략 b)	O ₆
실험집단 c	O ₃	X ₃ (독서전략 c)	O ₇
통제집단 d	O ₄	X ₄ (독서전략 d)	O ₈

* 출처: 김영석, 김경모, 백영민 (2017). 사회과학조사방법. p. 135, 참고 변형
 O₁, O₂, O₃, O₄: 사전검사
 X₁, X₂, X₃, X₄: 그룹별 적용 독서전략(독서방법의 조합)
 O₅, O₆, O₇, O₈: 사후검사

〈표 3〉 실험수업 차시별 설계

단계	차시	수업내용	
1단계	1차시	목적	실험수업 및 독서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수업방식	독서·텍스트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강의식 수업
2단계	진단평가		진단평가의 실시목적 안내 후 30분 간 평가 실시
3단계	2차시	목적	정보 기억하여 말하기, 구체적인 정보의 회상 및 나열
		수업방식	학생참여방식: 5분 개별독서 - 2분 정리 - 3분 발표
	3차시	목적	정리하여 말하기, 텍스트 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
		수업방식	학생참여방식: 5분 개별독서 - 2분 정리 - 3분 발표
	4차시	목적	내용의 핵심과 부연설명 구분하여 재구성한 내용 전달
		수업방식	학생참여방식: 5분 개별독서 - 2분 정리 - 3분 발표
4단계	진단평가		진단평가의 실시목적 안내 후 30분 간 평가 실시
5단계	설문조사		20분간 설문조사 작성

는 활동임을 안내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이병근, 김은하, 2016). 2단계에서 이용된 진단평가 검사지는 국어교육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확정된 최종 검사지는 연구 집단의 모든 학생들에게 배부되어 30분 간 진행되었다.

3단계의 3차시 수업은 독서전략의 적용을 위해 설계하였으며,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독서활동을 진행하고 독서과정 중에는 개인적 기록 및 필기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각 차시의 수업 틀은 독서방법 중 ‘돌아가며 읽기(round robin)’를 참고 및 일부 변형하였으며, 정해진 독서시간 후 무작위 순서로 수업 내 독서과제인 발표에 참여하여 모든 학생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개별독서시간은 수업 내 발표하기 적당한 비문학 지문 2개 분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읽을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독서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진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학급별로 30분간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5단계에는 참여 학생들의 독서인식

및 독서행동 변화를 비롯한 독서성과를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4.2 실험수업의 설계

1) 실험수업 사전 통제요소

인지적 영역에서의 텍스트 이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의 텍스트(text)는 읽도록 쓰여진 글(written passage being read)로 정보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 중 정보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교육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모든 독서활동은 별도의 편집으로 가공된 텍스트가 아닌 독자가 선택한 단행본의 본문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기본 텍스트는 매체에 따른 습득 정도의 차이를 줄이고자 온라인 매체 및 기기를 제한하고 출력된 활자자료로만 진행하였다. 즉 학생들은 실물도서 중심의 독서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텍스트는 인쇄물로만 활용되었다.

2) 실험수업의 운영 설계

본 연구는 독서전략에 따른 독서성과를 살펴

보고자 통제집단과 세 개의 실험집단은 단계별 독서방법을 각각 다르게 조합하여 설계하였다. 통제집단은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의 개입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독서행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사서교사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 없이 학교도서관을 방문한 학생이 자신이 관심 있는 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첫 장부터 홀로 조용히 읽어나가는 행태를 바탕으로 한다.

실험수업을 위한 집단의 실험처치 내용은 <표 4>와 같다. 수업에서의 단계별 독서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서 전 활동인 도서선택 자율성의 경우 통제하는 집단은 학생이 교사와 사전 검토 및 면담하여 권장도서 목록 내 도서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통제받지 않은 집단은 정보텍스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서방법 중 통독은 동일한 한 권의 책을 전

기간에 걸쳐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방식이며, 적독은 매 차시 다른 도서의 희망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집단으로 활동을 구분하였다. 도서내용은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임을 감안하여 정서순화, 가치관 형성, 진로탐색 등의 목적을 가진 '흥미 영역'과 지식의 습득, 교과 연계의 목적을 가진 '학습 영역'으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독서 후 활동인 조별활동의 경우, 독서클럽, 독서토론, 독서워크숍의 개념적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업 중 활동을 보면 학생들 간의 또래학습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조별 활동을 통해 공유 및 추론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실험수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독서전략은 기록 및 요약하기(summarization)로, 실험수업에서는 시간적 제약에 따라, 요약하기 규칙(Kintsch & Van Dijk, 1978) 중 일부 항목인

<표 4> 실험처치 내용

구분	실험집단 a, b, c	통제집단 d
수업과정	[독서 전 활동] 독서목표의 설정 및 활동도서 선정 ↓ [독서과정] 개별독서활동 ↓ [독서 후 활동] 개별/조별 독해내용의 정리 및 매체를 통한 이해 ↓ [정리] 말하기를 통한 내용의 정리	
수업형태	조별활동이 있는 경우 학생 중심 조별활동	학생 중심 개별활동
교사역할	선택자율성이 통제된 경우 학습지도자 (권장도서 제공 및 활동자료 결정)	학습보조자 (자료검색 보조)
수업장소	학교도서관 내 수업 공간	
처치기간	4주(2017년 10월 23일 ~ 11월 24일)	
지도교사	동일교사(연구자)	

무관한 정보 및 잉여 정보 삭제, 하위 항목들의 일반화, 중심 문장의 생성규칙을 안내하고, 독서 후 요약 및 기록하기 활동을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특히 독서능력 측면에서 학생 간의 개인편차를 방법적인 면에서 보완하고자 개별 독서시간과 정리시간, 변동비율 강화계획을 적용한 독서과제를 촘촘히 구성하여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진단평가

사전과 사후로 진행된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텍스트 이해력 요소의 성취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권희경과 신중호(2014)의 텍스트이해력 측정문항과 논술문항을 각각 제공받아 국어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편집 후 재구성하였다. 텍스트 이해력 평가 측정요소인 5개의 항목(사실 확인하기, 사실 추론하기, 요약문 찾기, 중요 어휘 추론하기, 주제문장 찾기)은 국어교육학의 독서이해 5단계 중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글 안에서

의 기본적 독해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진단평가의 측정 요소는 동일하며, 사전 진단평가는 집단 간 편차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텍스트 이해력의 측정 지표인 사후 진단평가는 학사일정으로 인해 실험 종료 후 일주일의 기말고사 기간 이후에 실시되었다.

4)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사후 진단평가 후에 실시되었으며, 독서전략을 경험한 학생들의 독서인식 및 독서행동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표 5>와 같이 전체 58개 문항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에 임하는 학생들은 약 20-30분에 걸쳐 설문에 참여하였다. 독서태도 외에 참고목적으로 표본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사항, 개별특성, 실험수업 부문이 함께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독서태도와 실험수업 부문이 5점 리커트 척도 형식, 일반사항과 개별특성 부문은 일반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배치되었다.

<표 5> 독서태도 설문구성

척도			측정항목	문항 수	문항번호	참조
독서태도			실험수업 이후의 - 독서인식의 변화 - 독서행동의 변화	26	Ⅲ. 1~26	권은경(2012) 조혜정(2010)
참고	1	일반 사항	과거의 독서교육 경험	3	Ⅰ. 1~3	변우열(2012) 조혜정(2010)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	4	Ⅰ. 4~7	
	2	개인 특성	개인의 학습 성향과 능력	8	Ⅱ. 1~8	김재철(2005) 박경빈(2011)
			진로의 구체화 정도	4	Ⅱ. 9~12	
	3	실험 수업	실험수업 기간 중 학생의 독서행태	13	Ⅳ. 1~13	
계				58		

3.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가설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각 변인 값으로 독서전략은 집단별로 다르게 적용된 실험수업의 결과, 텍스트 이해도는 진단평가의 성취결과 점수, 독서태도는 리커트 척도를 통한 설문문항의 결과이다. 연구데이터를 바탕으로 SPSS 25.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독서태도에 관한 문항들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베리맥스(varimax) 직교회전 방식을 적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5개 요인의 분산 설명력(explained variance)은 66.4%, 변수들의 공통성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항목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실시한 결과 KMO는 .77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대한 Approximated χ^2 는 1442.031, $p < .001$ 로 해당 요인 추출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결과, 도서선정요인을 제외한 다른 4개의 요인은 0.60을 초과하는 값을 나타내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5개 요인은 장애, 행동변화, 도서선정, 검색활동, 인식변화이다. 장애는 독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 행동변화는 실험수업 이후 독서행동의 변화, 도서선정은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도서 선정 능력, 검색활동은 독서활동 중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검색활동, 그리고 인식 변화는 실험수업 이후 독서방법과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개별독서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서방법 적용 유무에 따라 집단간의 t -검정(t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서전략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하였다.

넷째, 독서태도 요인과 텍스트 이해력 사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Test)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독서방법을 다르게 조합하여 적용한 실험수업이 나타내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진단평가와 설문조사 결과를 가설의 근거로 분석하여 결과 값을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1 표본의 특성

본고의 실험참여 학생들은 2000~2002년 출생으로 고교선택제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 및 배정 받아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으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생이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2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독서전략으로서 독서방법의 조합은 텍스트 이해력을 포함한 독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 독서전략에 따라 텍스트이해력의 성취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독서전략에 따라 독자의 독서태도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연구질문 2.

독서전략에 따른 독서태도는 텍스트 이해력과 관련이 있는가?

[가설 3]

- 텍스트 이해력의 성취결과와 독서태도 요인 간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연구대상은 독서과정의 측면에서 '독서 전-독서 중-독서 후'의 세 단계에 따라 네 개의 독서방법이 서로 다른 조합으로 적용된 실험수업에 참여하였다. 실험수업에 적용된 독서전략의 효과검증을 위해 실험 및 통제집단 간 기본 이해력 능력에 편차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 진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t-검증을 한 결과 실험에 참여한 네 개의 집단 사이에는 편차가 없었다. 이를 근거로 사후 진단평가의 결과는 실험수업의 영향을 받았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독서전략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개별 독서방법의 효과를 확인해야한다. 따라서 집단 간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표 6>은 개별 독서방법에 따른 집단별 평균비교 결과이다. 주제문장 찾기의 독서범위 방법, 조별활동여부, 도서내용 구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독서방법의 결과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개별 독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의 텍스트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이후 관찰되는 텍스트 이해력 성취결과와 집단 간 차이는 독서전략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은 사후 진단평가를 통한 텍스트 이해력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먼저 요약문 문항은 사실확인(.318**), 이해추론(.166**) 두 요소와, 어휘추론 문항은 사실확인(.210**), 이해추론(.124*) 두 요소와 관계성이 있다. 사실확인 문항은 요약문(.318**), 어휘추론(.210**), 이해추론(.124*)의 세 문항 요소, 이해추론 문항은 사실확인(.166**), 요약문(.124*), 어휘추론(.314**), 주제문장 찾기(-.122*)의 네 문항 요소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문장 찾기 문항은 이해추론(-.122*)과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텍스트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각 요소들은 상호 관계성을 가지며, 이는 독서활동이 다양한 인지적 작용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1]

- 독서전략에 따라 텍스트이해력의 성취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6〉 개별 독서방법에 따른 집단 간 평균비교

성적	독서방법	구분	N	m	sd	t
요약문 찾기	선택자율성	O	166	2.30	0.716	1.260
		X	161	2.40	0.752	
	독서범위	(통독)	164	2.41	0.708	-1.710
		(적독)	163	2.28	0.756	
	조별활동여부	O	168	2.42	0.661	1.958
		X	159	2.26	0.799	
	도서내용	(흥미)	159	2.26	0.799	1.958
		(학습)	168	2.42	0.661	
중요 어휘추론	선택자율성	O	166	0.60	0.491	0.116
		X	161	0.61	0.490	
	독서범위	(통독)	164	0.65	0.480	-1.516
		(적독)	163	0.56	0.497	
	조별활동여부	O	168	0.60	0.492	-0.389
		X	159	0.62	0.488	
	도서내용	(흥미)	159	0.62	0.488	-0.389
		(학습)	168	0.60	0.492	
사실 확인	선택자율성	O	166	5.61	1.325	-0.829
		X	161	5.49	1.241	
	독서범위	(통독)	164	5.61	1.270	-0.838
		(적독)	163	5.49	1.298	
	조별활동여부	O	168	5.52	1.313	-0.472
		X	159	5.58	1.254	
	도서내용	(흥미)	159	5.58	1.254	-0.472
		(학습)	168	5.52	1.313	
이해 추론	선택자율성	O	166	1.86	0.901	-0.472
		X	161	1.81	0.930	
	독서범위	(통독)	164	1.88	0.923	-0.917
		(적독)	163	1.79	0.906	
	조별활동여부	O	168	1.82	0.850	-0.335
		X	159	1.86	0.980	
	도서내용	(흥미)	159	1.86	0.980	-0.335
		(학습)	168	1.82	0.850	
주제문장 찾기	선택자율성	O	166	0.72	0.631	-0.568
		X	161	0.68	0.638	
	독서범위	(통독)	164	0.63	0.618	1.989*
		(적독)	163	0.77	0.644	
	조별활동여부	O	168	0.81	0.647	3.343**
		X	159	0.58	0.599	
	도서내용	(흥미)	159	0.58	0.599	3.343**
		(학습)	168	0.81	0.647	

** $p < .01$ * $p < .05$

〈표 7〉 진단평가 요소 간의 상관관계

	요약문 찾기(3)	중요 어휘추론(1)	사실확인(7)	이해추론(3)	주제문장 찾기(2)
요약문 찾기(3)	1				
중요 어휘추론(1)	0.090	1			
사실확인(7)	.318**	.210**	1		
이해추론(3)	.166**	.124*	.314**	1	
주제문장 찾기(2)	0.067	-0.020	-0.036	-.122*	1

** $p < .01$ * $p < .05$

집단 간 성취비율의 탐색적 관찰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인 실험집단 a, b, c와 통제집단 d 간의 텍스트 이해력의 항목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요약문

찾기 문항과 주제문장 찾기 문항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값은 요약문 찾기 문항이 $F(3,323) = 2.801, p < .01$ 이고, 주제문장 찾기 문항이 $F(3,323) = 5.134, p < .001$ 의 결과를 보였다. 정확한 집단

〈표 8〉 독서전략별 텍스트 이해력 성취 평균비교

(N=327)

구분	집단	N	m	sd	F	Scheffe
요약문 찾기	a	78	2.24	0.840	2.801**	b>a
	b	83	2.54	0.631		
	c	85	2.31	0.673		
	d	81	2.28	0.762		
중요 어휘추론	a	78	.58	0.497	0.809	-
	b	83	.64	0.483		
	c	85	.55	0.500		
	d	81	.65	0.479		
사실 확인	a	78	5.46	1.224	0.544	-
	b	83	5.52	1.263		
	c	85	5.52	1.368		
	d	81	5.70	1.279		
이해 추론	a	78	1.78	0.989	0.395	-
	b	83	1.84	0.876		
	c	85	1.80	0.828		
	d	81	1.93	0.972		
주제문장 찾기	a	78	.63	0.626	5.134***	c>d
	b	83	.72	0.650		
	c	85	.89	0.637		
	d	81	.53	0.572		

** $p < .01$, *** $p < .001$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사후검정으로 Scheffe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요약문 찾기 영역에서는 집단 a와 집단 b가, 주제문장 찾기 영역에서는 집단 c와 집단 d(통제집단)의 차이가 드러났다.

요약문 찾기 문항에서 차이를 보인 집단 b는 '통독형 조별 통제학습독서' 조합이며, 집단 a는 '적독형 개별 통제흥미독서' 조합으로 두 집단 모두 도서선택권이 제한된 환경에서 독서활동이 진행되었다. 높은 성취를 보인 집단 b는 집단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적은 독서방법인 조별활동과 학습독서의 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혼자 자유롭게 읽고 흥미로운 내용의 도서를 읽는 방식의 자율성이 강한 독서방법 조합이 오히려 요약문 찾기 문항에서는 좋은 성취를 얻지 못하였다.

주제문장 찾기 문항에서 차이를 보인 집단 c는 '적독형 조별 자율학습독서'의 조합, 집단 d(통제집단)는 '통독형 개별 자율흥미독서'의 조합으로 두 집단 모두 자유롭게 본인이 읽고자 희망하는 도서를 선정하여 읽는 상황에서 활동이 진행되었다. 높은 성취를 보인 집단 c는 집단 b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통제받는 독서방법인 조별활동과 학습독서의 조합이었으며, 낮은 성취를 보인 집단 d(통제) 역시 집단 a와 같은 개별흥미독서의 조합이 적용되었다.

요약문 찾기와 주제문장 찾기 문항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두 집단은 조별-학습독서의 조합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전략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독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독서방식인 조별-학습독서의 조합 안에서 도서선택권이 통제된 상황에서의 통독 방식은 요약문 찾기에, 도서선택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의 적독 방식은 주제문장 찾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 독서전략에 따라 독자의 독서태도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독서전략을 경험하므로, 실험수업 이후 독서태도라는 독서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중 독자의 행동 및 인식의 변화를 묻는 총 13개의 객관식 문항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독서목적에 맞는 독서활동, 매체활용, 자발적 독서활동의 세 항목이 각각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값은 독서목적에 맞는 독서활동이 $F(3,321) = 2.538, p < 0.05$, 매체활용이 $F(3,321) = 3.485, p < 0.01$, 자발적 독서활동이 $F(3,321) = 2.560, p < 0.05$ 로 나타났다. 세 항목 모두 집단 b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집단 b(통독형 조별 통제학습독서)는 실험수업 이후 목적에 맞는 독서를 하게 되었다는 독서인식의 변화와 실험수업 이후 독서활동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매체를 활용하는 행동, 자발적으로 독서활동에 임하는 행동의 변화를 모두 경험하였다.

[가설 3]

- 텍스트 이해력의 성취결과와 독서태도 요인 간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9〉 독서태도 설문문항의 집단별 응답비교

(N=325)

구분	집단	N	m	sd	F	Scheffe
태도_ 목적에 맞는 독서	a	77	16.40	113.454	2,538*	b>a
	b	83	15.35	109.290		
	c	85	3.44	0.794		
	d	81	15.72	110.623		
태도_ 매체활용	a	77	16.77	113.411	3,485**	b>d
	b	83	15.98	109.220		
	c	85	3.79	0.927		
	d	81	3.60	1.008		
태도_ 자발적 독서활동	a	77	16.31	113.466	2,560*	b>c
	b	83	15.78	109.242		
	c	85	3.56	0.957		
	d	81	3.64	1.076		

**p<.01 *p<.05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텍스트 이해력의 성취결과와 5개의 독서태도 요인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요약문 찾기 항목은 행동변화(.127*), 도서선정(.142*) 요인과 p<.05 수준에서, 어휘추론 항목은 도서선정(.132*)과 p<.0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행동변화 요인 문항은 실험수업 이후 1달에 1권 이상의 정기적 독서활동, 자발적 독서활동, 실험기간 중 실험수업 이후의 시간에도 독서를 하게 되었는지 묻는 문항이 포함된다. 도서선정 요인에는 실험수업 중 본인에게 주어진 도

서선택권에 대한 인식, 자신이 읽은 도서의 적정 수준, 도서 선택과정의 용이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된다. 요약문 찾기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들에게서 꾸준한 자발적 독서에 임하는 행동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해당 학생들은 도서선정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휘추론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들에게서도 도서선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독서방법의 조합이 독자의 독

〈표 10〉 텍스트 이해력과 독서태도 요인 간의 상관관계

	장애	행동변화	도서선정	검색활동	인식변화
요약문 찾기	-0.086	.127*	.142*	-0.072	0.089
중요 어휘추론	-0.069	0.051	.132*	0.043	0.015
사실확인	-0.053	0.058	0.030	0.009	-0.002
이해추론	-0.003	0.077	0.052	-0.081	0.010
주제문장 찾기	0.062	0.023	0.029	0.014	-0.008

**p<.01 *p<.05

서활동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즉 각 독서전략에 적용된 독서방법들은 서로의 역할과 효과에 정과 부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조합으로 구성된 독서전략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첫째, 분석결과 텍스트 이해력의 요약문 찾기 항목과 주제문장 찾기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특정 독서방법의 조합이 텍스트 이해력 성취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문 찾기 문항은 세세히 읽고 글 전반을 이해하여 전체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즉 학술적 텍스트가 내용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에도 방식(frame)이 제한되지만 내용(contents)적으로는 자율성이 확보된 조합에서 학생들이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문장 찾기 항목에서는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핵심과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중요한 내용을 구분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독서영역을 지정하는 면에서 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중요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며, 개개인이 핵심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조별활동을 통해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활동이 모둠구성원들에게는 글의 구조와 핵심내용을 판별하는 연습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인 독서전략의 조합은 개별흥미독서, 개별자율흥미독서 등 자율성이 높은 독서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독자에게 너무 많은 자율성은 오히려 독서활동의 효과를 저

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와 자유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독서목적에 맞는 독서활동, 매체활용, 자발적 독서활동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독자가 경험한 독서전략은 일상의 독서활동과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특정 독서방법의 조합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책 읽기만을 강조하고 자율성 보장으로 실제 학생의 독서활동을 방임하는 교육방식보다는 독서활동 내에서 적절한 도전과제를 제공하고 학생이 직접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독서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방식이 평생 독자 양성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서태도의 다섯 개 요인 중 행동변화 요인과 도서선정 요인에서 텍스트 이해력과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두 변인 간 영향력의 방향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꾸준한 독서경험은 전반적인 독해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선정 요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도서선택권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게 맞는 적정 난이도, 도서 내용에 따른 구분의 차이를 이해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약문 찾기와 중요 어휘추론 항목과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글 전반을 총괄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 수준에 맞는 내용을 읽어나가는 활동이 독해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고등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중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와 교육적 책임이 크다. 즉 청소년 독자를 평생 독자로 성장시키는 학교독서교육의 본질적 목적에는 교양적 독서 영역에서의 평생 독자 개념 이상으로 교육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이해력 및 학습적 독서능력의 성장을 보조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독서활동의 단계에 따라 독서방법이 조합된 독서전략이 청소년의 텍스트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학교도서관이 교육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학습적 역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현장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준실험설계 모형에 근거하여 네 번의 독서교육, 진단평가, 설문조사로 설계하였다. 진단평가는 다섯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독서태도와 실험수업 항목으로부터 총 다섯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독서전략이 청소년의 텍스트 이해력을 포함한 독서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독서전략은 텍스트 이해 성취 항목에 영향을 미치며, 요약문 찾기 문항에서는 '통독형 조별 통제학습독서' 조합이, 주제문장 찾기 문항에서는 '적독형 조별 자율학습독서'의 조합이 효과를 보였다. 특정 독서전략에 따라 독자의 독서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독서목적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매체 활용 및 자발적 독서활동의 행동 변화가 모두 일어난 조합은 '통독형 조별 통제학습독서'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독서성과

는 텍스트 이해력과 독서태도로 이 두 독서성과 사이에서도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세 가지의 가설이 모두 검증됨에 따라 독서전략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는 텍스트 이해 성취와 독서행동의 변화로 독서성가를 이끌어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전략의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면, 통제요소 없는 자유는 청소년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에 집중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자극하지 못한다. 즉 독서활동에서 목적의식 및 독서의지를 설정할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성취 경험까지 부재하게 되므로 후속 독서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특히 내용(contents)의 제한보다는 틀(frame)의 제한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자신의 독서수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독서진단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준에 맞는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텍스트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의 장기적 독서교육 관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독자가 독서활동을 하기 위해 복합적인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기존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독서방법 조합을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그 효과를 제안해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단행본 중심의 단계별 독서전략을 적용한 학급 단위의 독서수업 설계로 학생들의 기초 텍스트 이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되어 향후 이러한 독서수업의 확장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독서 증도포기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 독자의 기초 학습능력 지원 측면에서 도서관의 독서에 대한 인지적 영역으로의 연구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독서를 통한 독자의 개인

적 만족, 과제 수행의 지원 외에도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기초 이해력 영역을 보조함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제안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구자옥, 김성숙, 이혜원, 조성민, 박혜영 (2016).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PISA 2015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2014년 성인 문해능력 조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권은경 (2012).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 분석이 시사하는 학교도서관 독서 교육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49-269.
- 권희경, 신종호 (2005). 설명식 글의 구조화 방식과 학습자의 사전지식, 작업기억능력이 텍스트 이해 및 지연기억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2), 433-453.
- 김선경, 윤소정, 김정섭 (2011). 추론적 읽기전략 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텍스트 이해와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3(1), 1-12.
- 김수연 (2007). Cattell-Horn-Carroll(CHC) 인지요인, 초인지, 텍스트 이해력 간의 관계 및 성차분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석, 김경모, 백영민. (2017). 사회과학조사방법. 파주: 나남출판.
- 김용욱, 우정환, 신재한 (2015). 난독증 연구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 213-242.
- 김은희 (2016).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차원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습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 김재철 (2005). 성별과 학습선호도 유형에 따른 독서흥미, 독서량, 인지전략, 학문적 자신감, 읽기소양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19(1), 93-114.
- 김주환 (2018). 독서 워크숍의 개념과 방법. 독서연구, 46, 183-212.
<http://dx.doi.org/10.17095/JRR.2018.46.6>
- 김진아 (2010). 중심내용 파악 전략지도가 고등학생의 설명문 독해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보라 (2013). 청소년의 독자인식양상과 범주 연구. 국어교육학회, 46(0), 307-332.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경빈, 권혁민 (2011).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및 자기주도적학습 특성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1(1), 1-17.
- 박수자 (2003). 읽기 전략과 이해 중심 읽기 수업의 관계. *독서연구*, 9(0), 117-145
- 박영민, 최숙기 (2008). 읽기 동기 신장을 위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 구성 방안. *독서연구*, 19, 201-228.
- 변우열 (2012). 독서태도 모형 분석을 통한 독서태도 조사 설문 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39-159.
- 소병문 (2019).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독서 동기 유형에 끼친 영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77-198.
<https://doi.org/10.16981/kliss.50.1.201903.177>
- 송기호 (2007). 교과학습과 연계한 학습독서의 실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423-441.
<https://doi.org/10.16981/kliss.38.1.200703.423>
- 왕효성 (2014). 청소년 독자들의 텍스트 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자유 독서와 학습 독서 상황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2, 63-93.
- 유한익, 정재석, 이은경, 강성희, 박은희, 최인욱 (2016). 국내 아동 및 청소년 난독증 진단을 위한 종합 학습능력평가도구-읽기의 표준화 연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7(2), 109-118.
<http://dx.doi.org/10.5765/jkacap.2016.27.2.109>
- 윤준채 (2011). 읽기 전략의 효과에 대한 검토. *독서연구*, 25, 85-106.
- 이경화 (2005). 국어교육: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독서 전략 연구. *한국국어교육학회*, 71(0), 213-233.
- 이병곤, 김은하 (2016).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순영, 최숙기, 김주환, 서혁, 박영민 (2015). *독서교육론*. 서울: 사회평론.
- 이연옥 (2006). 학교 독서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209-234.
- 정옥년 (1998). 책 읽기와 사람됨: 독서(讀書)와 청소년(靑少年) 지도(指導). *한국독서학회*, 3(0), 183-220.
- 조미아 (2007). 독서방식이 아동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성향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1(1), 33-54.
- 조혜정 (2010). 독서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숙기 (2010). 중학의 읽기 동기와 읽기 태도에 관한 상관성 연구. *독서연구*, 23, 345-380.
- 최숙기 (2017). 청소년 읽기 부진 학생들의 읽기 특성 분석 및 읽기 부진의 유형 분류. *한국독서학회*, 44(0), 36-67. <http://dx.doi.org/10.17095/JRR.2017.44.2>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2006). 독서교육사전. 서울: 교학사.
- 한철우 (2005). 학교 독서 지도의 방향과 과제. 독서연구, 14(0), 9-32.
- 한철우, 홍인선 (2005). 자기 주도성 향상을 위한 독서 워크숍 지도 방안. 독서연구, 13(0), 237-266.
- 함명식 (2003). 학교도서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문적 탐구. 한국비블리아 발표논문집, 9, 109-124.
- Afflerbach, P., Pearson, P., & Paris, S. (2008). Clarifying differences between reading skill and reading strategy. Manuscript.
- Applebee, A. N. (1993). Literature in the secondary school: Studi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the United States.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Chablis, M. J., & Calfee, R. C. (1998). Textbooks for learning: Nurturing children's minds. Malden, MA: Blackwell.
- Harris, T. L., & Hodges, R. E. (1995). The literacy dictionary: The vocabulary of reading and writing.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Kintsch, W., & Van Dijk, T. (1987).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85.
- Mayer, R. E. (1984). Aids to prose comprehension. Educational Psychologist, 19, 30-42.
- Vansledright, B. (2001). In search of America's past: Learning to read history in elementary school. NY: Teachers College Press.
- Wutz, J. A., & Wedwick, L. (2005). BOOKMATCH: Scaffolding book selection for independent reading. The Reading Teacher, 59(1), 16-32.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yeon, Wuyeol (2012). A development of the contents for the reading attitude survey questionnaire through the analysis of reading attitude model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139-159.
- Center for Korean L&L Education, The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06). Reading education dictionary. Seoul: Kyohaksa.
- Cho, Hyejeng (2010).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n reading books. M.A. thesis, Kyungnam University, Korea.
- Cho, Mia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methods on the tendency of creative ability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3-54.
- Choi, Sukgi (2010).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ading motivation and attitude toward rea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3, 345-380.
- Choi, Sukgi (2017). Identifying reading difficulties and cluster analysis of struggling adolescent reader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44(0), 36-67.
<http://dx.doi.org/10.17095/JRR.2017.44.2>
- Ham, Myeongsik (2003). A study on the effects of school libraries in school achievement.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 109-124.
- Han, Cheolwu (2005). The directions and the tasks of reading education in the school.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4(0), 9-32.
- Han, Cheolwu, & Hong, Insun (2005). A teaching method of reading workshop for the improvement of self-l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3(0), 237-266.
- Jeong, Oaknyun (1998). Reading and manning: Reading and youth guidance.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0), 183-220.
- Kim, Eunhui (2016).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ducational welfare for the dyslexia and reading difficulties. *The Korea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fall conferen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Jaecheol (200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interest, reading amount, cognitive strategy, academic confidence and reading Literacy in terms of gender and Learning styl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1), 93-114.
- Kim, Jin-a (2010). Effect of the strategy guidance of identifying main ideas on the reading comprehension of high school students' expository writing. M.A.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Kim, Juhwan (2018). Concepts and methods of reading workshop. *Journal of Reading Research*, 46, 183-212. <http://dx.doi.org/10.17095/JRR.2018.46.6>
- Kim, Sungyeong, Yoon, Sojeong, & Kim, Jungsup (2011). The effects of inferential reading strategy program on text comprehension and korean language academic achievement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ishries And Sciences Education*, 23(1), 1-12.
- Kim, Suyeon (2007). (The)cattell-horn-carroll(CHC) cognitive abilities, metacognition related the text comprehension. Ph.D. dis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Kim, Yeongsuk, Kim, Gyeongmo, & Baek, Yeongmin (2017). *Social research methods*. Paju: Nanam Publishing House.

- Kim, Yonguk, Woo, Jenghan, & Shin, Jaehan (2015). A study on dyslexia researc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6, 213-242.
-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00). *Terminology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Hakjisa.
- Ku, Jaok, Kim, Sunguk, Lee, Hyewon, Cho, Sungmin, & Park, Hyeyeong (2016).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An in-depth analysis of PISA 2015 result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won, Eungyeong (2012). Reading education at school libraries: New conside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their reading achievement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249-269.
- Kwon, Huigyeong, & Shin, Jongho (2005). Effects of text structures of expository stories and readers' prior knowledge and working memory on text comprehension and delayed mem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2), 433-453.
- Lee, Byeonggon, & Kim, Eunha (2016). *Enhancing the practical reading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school curriculum*.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 Lee, Kyeonghwa (2005). The study on the reading strategies that help to cultivate the ability of self-directed Learning.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71(0), 213-233.
- Lee, Sunyeong, Choi, Sukgi, Kim, Juhwan, Seo, Hyuk, & Park, Yeongmin (2015). *Reading education*. Seoul: Sapyoungbook.
- Lee, Yeonoak (2006). A critical study on school reading instruction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3), 209-234.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2017 National research on reading status*.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curriculum introduct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2014). *2014 Adult literacy survey*.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Park, Gyeongbin, & Kwon, Hyukmin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disposi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leading learning trait of gifted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1(1), 1-17.
- Park, Suja (2003). Reading strategies and read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9(0), 117-145
- Park, Yeongmin, & Choi, Sukgi (2008). A study on reading motivation improvement method using self-selected reading program.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9, 201-228.

- Ryu, Bora (2013). An analysis of adolescents' reader self - perception.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6(0), 307-332.
- So, Beongmun (2019). An analysis on impact of the self-selected reading program using recommended book lists to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177-198. <https://doi.org/10.16981/kliss.50.1.201903.177>
- Song, Kiho (2007). A practice of reading to learn linking the subject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423-441. <https://doi.org/10.16981/kliss.38.1.200703.423>
- Wang, Hyosung (2014). Exploring adolescent readers' perceptions of text difficulty focusing on contexts of free voluntary reading and content area r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2, 63-93.
- Yoo, Han-ik, Jung, Jaesuk, Lee, Eungyeong, Kang, Sunghui, Park, Eunhui, & Choi, In-uk (2016). Standardization of the comprehensive learning test-reading for the diagnosis of dyslexia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7(2), 109-118. <http://dx.doi.org/10.5765/jkacap.2016.27.2.109>
- Yoon, Junchae (2011). Review of effects of reading strategie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5, 85-106.